

‘보성군요트협회’ 창립 총회 본격 출범

올해 득량만서 요트 국가대표 훈련 실시

보성군민 득량만 요트 성지 만들기 관심 받아

녹차수도 전남 보성군 득량만에 자리한 ‘보성군요트협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창립 발기인 대회에 이어 창립총회는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임, 정관승인, 2020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등을 심의·의결하고 협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의결되었다.

이번 창립총회는 11일 오후 5시 보성군 화전면 대치 호텔 2층 예향홀에서 열렸으며 최병만 보성군 부군수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황주홍 국회농해수위원회 위원장, 강복수 보성군의원, 한기섭 보성군의원,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임영수 전남도의원, 이동현 전남도의원,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 당선인,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김형태 국가대표요트감독을 비롯한 관계 인사와 보성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에 따라 보성 득량만 요트 구역은 천혜의 자원과 경관을 자랑하

며, 화려한 오색 물결의 요트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 동안 비봉마리나와 울포해수욕장은 양식장과 암초가 없어 요트 꿈나무인 유소년 전문선수와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최적의 장소로 일찍이 눈길을 끌어들였다.

이 자리에서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남해안거점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블루투어 신흥강자로 떠올랐으며 이곳 득량만을 사계절 해양레저관광을 즐길수 있는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키워나가기 위해 시설과 콘텐츠보강 등 다방면에서 구상을 마치고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축사를 보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저의 고향인 보성군요트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라며, “연중 온화한 기후인 천혜의 득량만에서 올해부터 국가대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트산업은 해양레저관광의 핵심으로 모든 발전 중심



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행사 식전 행사장을 찾은 황주홍 국회의 농해수 위원장은 올림픽 개최되는 해에 보성군 요트협회가 발족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앞으로 협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겠다 하였으며 강병석 전남도협회 회장 등이 격려사를 통해 비봉 마리나를 거점으로 새로이 발족 하는 협회와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훈련용 당기급 요트20척 지원을 당장 시행 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형태 감독은 건배사 제의를 받고 인사를 통해 금년 도쿄 올림픽에서 요트계의 숙원인 메달 획득의 꿈을 이루어 메달을 걸고 선수들과 함께 다시 찾아와 인사와 건배사를 올리 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도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마리나 향만시설만 현재 5개에서 최대 18개로 늘어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보성=인구일 기자

나주시, ‘그린 스쿨·오피스’ 시범 운영

공기정화식물 활용...실내 녹색 공간 조성

나주시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시는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인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공공기관(1개소), 초·중·고교(2개소)을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스쿨·오피스는 교실 및 사무 공간 면적 대비 2%에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 △헬스케어 식물 △그린파티션 △바이오 월 등 실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식각하고 답답한 사무실 공간에 녹색의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 실내 공기질 개선은 물론 시각적 효과를 통한 직장인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원내활동프로그램과 병행, 학업에 대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정서적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



이다.

시는 사업비 4천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 학교에 개소 당 1천만원, 사무실 1개소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센서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실제 사용 효과를 측정하고, 실내 그린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기정화식물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과 직장인의 주 활동 공간인 교실, 사무실의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새해농업인 복숭아 품목 교육 실시

화순군은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품목교육의 하나인 복숭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복숭아 고품질 재배기술을 주제로 진행하며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 현장 애로 기술에 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정 방향을 비롯해 농업 재해, 농약 안전 사용기술,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

방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품목별 교육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품목 교육은 지난해 추진한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복숭아 교육은 인기가 많아 매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추진해 한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품목 교육으로 복숭아 이외에 내수면 양어, 단호박, 농업경영, 농작업 안전, 친환경 인증 사업자 대상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위한 ‘원탁회의’



이날 회의는 지역 내 문화단체와 예술가, 전문가에서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는 물론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행정부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부 행사에서는 강은미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대안으로서 소통과 참여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박사의 문화도시 사업의 개념과 추진과정 소개하고,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전영철 센터장이 문화도시 조성 사례와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사문화연구소 신동호 소장의 사회로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담양=박종영 기자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은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단체, 행정, 민관협의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생태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 (주)조정 정인숙 중기부장관상

곡성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조정 정인숙대표가 2019 지식재산활용 유공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술과 함께 즐기는 가장 오래된 식료품 중 하나로 알려진 ‘식초’는 건강 및 미용 목적으로 뛰어난 효능이 있다.

이러한 효능을 가진 발효식초를 빛어내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인증 발효명장인 (주)조정 정인숙 대표의 전통발효식초에 대해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 오던 중, 현재까지 70여개 제품을 자체 연구개발하면서, 15개의 발명특허를 보유함으로써 마침내 정부 부처로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인증을 받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주)조정 정인숙 명장의 대표 상품 천연발효식초 ‘뽕발사미식초’는 2018년 발명특허전시회,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2019 세계 식음료 평가 기관(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에서 우수상인 2스타상을 수상하며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주)조정 정인숙 명장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사업장 인증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인증, 부설 연구소 설립을 하면서 명실공히 지역경제발전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정인숙 대표는 “별도의 첨가물 없이도 활용되는 천연발효식초로 기술 연구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 사업 박차

신안군 시금치는 재배면적이 1,092ha로 연간 200억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겨울철 주요 소득작물다. 신안군에서는 주산지로서 차별화된 재래종 시금치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재래종 시금치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재래종 시금치 생산 농가에 대해 재래종자비 지원, 녹비종자비 지원, 포장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래종 시금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